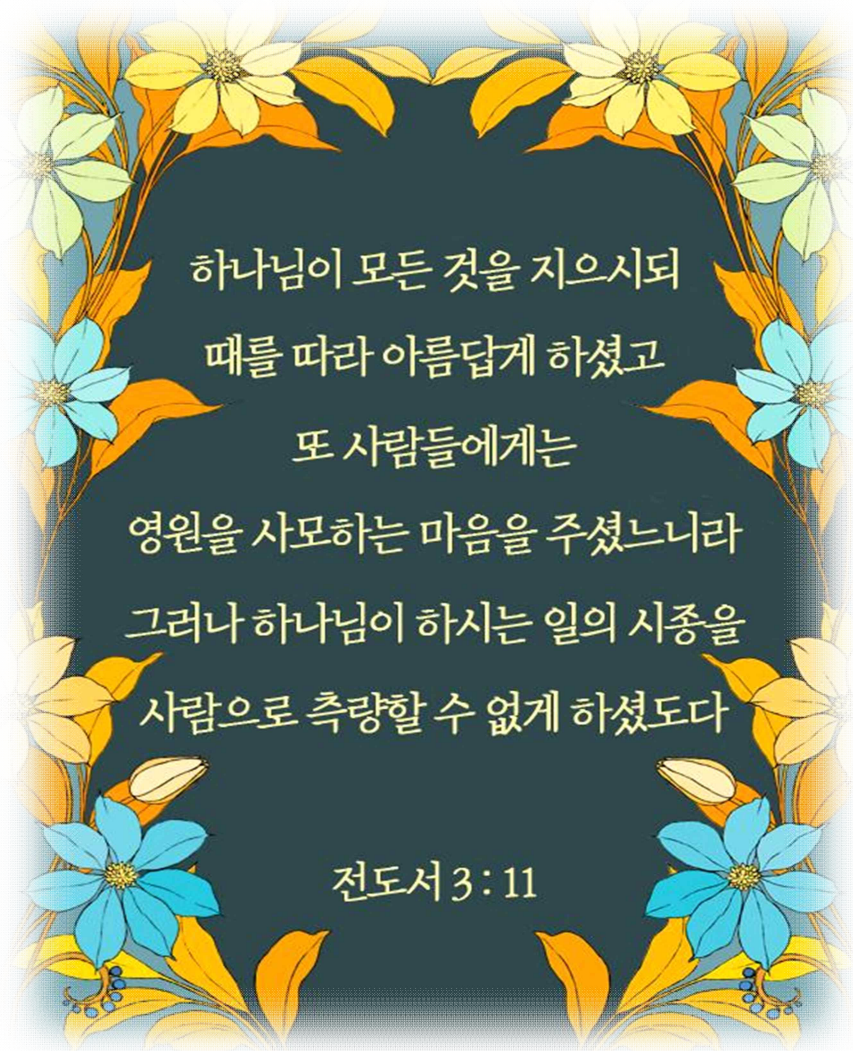


2021년 세광교회 온라인바이블(여름특강)

전도서 강의안



이름 : _____

2021년 온라인바이블 [전도서] 강의계획서

과목명	전도서	강사명	조현식 목사	연락처	-
수업시간	매주(수) 오전11시~12시	장 소	온라인	기 간	7주 과정

강의소개	일상의 가치를 논하는 ‘헤벨’의 책 전도서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투쟁과 기획을 ‘헤벨’(헛됨, 덧없음, 허무, 부조리, 신비, 수수께끼, 부패하기 쉬움)이라고 평가하는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의 모호한 말의 세계를 탐험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 제 물	1). 매주 해당하는 본문 읽어오기 2). 소감문 제출 제출은 문자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강사에게 문자 전송 (8/25까지)
참고교재	성경, 강의안(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바이블에서 다운로드 가능)
수업방법	온라인 강의(유튜브 세광교회 채널)

주별 수업 계획		
주	날짜	강의내용(본문)
1	7/14	전도서의 개론적 이야기
2	7/21	모든 것이 허무하다 (1:1-2:26)
3	7/28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3-5장)
4	8/4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가? (6:1-8:15)
5	8/11	인간 지혜의 한계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기쁨으로 답하다 (8:16-9:10)
6	8/18	지혜와 어리석음의 긴장 사이에서 (9:11-11:6)
7	8/25	삶을 즐겨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1:7-12:14)

수료 기준
1. 출 석 : 온라인강의 7주 듣기 (실시간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녹화영상 시청 출석인정)
2. 과제물 : 소감문 제출(문자 OR 카카오톡 전송 가능)

강의를 시작하며

성경이 쉬워지는 3가지 방법

1). 먼저 성경 본문을 ()¹⁾ 읽기

성경이 쉽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가능한 한 천천히 이것저것 살피면서 전체를 조망하여 자세히 읽다보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풍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쉽기 때문**입니다.

2). 자세히 읽으면서 ()²⁾에 집중하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더 관심이 가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런 습관이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 본문을 골고루 살피십시오.** 그러면서 본문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세히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내용과 의미를 많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메모해 놓으십시오.

3). ()³⁾를 먼저 생각하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뭘 해야 하며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마다 성경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등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솟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해석**입니다.

1) 자세히
2) 아는 것
3) 하나님의 은혜

2021년 7월 14일(수)_제1강

1. 들어가며_전도서는 어떤 책인가?

(1). 서론

- ▶ 전도서는 ()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담론을 담고 있다.
- ▶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경외를 바탕으로 두고 “해 아래”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꼼꼼하고 집요하게 따져 묻는 **현실주의자의 사색**이 담기게 되었다.
- ▶ 구약성경에서 전도서를 뺀 나머지 책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인 “야웨(여호와)”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전도서는 하나님의 인격적,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일반적 명칭인 **“하나님”(엘로힘)**만 호명될 뿐이다.
- ▶ 전도서는 구원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 사는 삶**, 곧 자연의 순리에 따라 질서정연함 속에서 일상을 책임 있게 구현하는 보편적 가치에 관심을 둔다.
- ▶ 구약의 오경, 역사서, 예언서와는 달리 지혜문학으로서의 전도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취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삶의 진리들을 품는다**.
- ▶ 욕기와 더불어 전도서는 구약성서에서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현실 비판적 본문
- ▶ 인생은 헛되며 모든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것, ()⁵⁾를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라
- ▶ 지혜문학의 특징 : 무엇 때문에 그리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4) 땅 위에

5) 창조주

(2). 명칭

▶ 한글(한문) : 전도서 傳道書(전할 **전** 길 **도** 글 **서**)
도(길)를 전하는 책 : 삶의 길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책

▶ 히브리어 : 코헬렛 קהלת(Qoheleth)
어원은 동사 카할 :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자료들을 수집하다
코헬렛은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연설자”(speaker)

▶ 영어 : 에클레시아스테스(Ecclesiastes)
70인역 전통에 따라 붙여진 그리스어(헬라어) 제목을 음역한 것

(3). 저자 : 솔로몬 혹은 익명의 코헬렛

▶ 기독교 전통에서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 주장

- 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 1:2)
- ②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는 구체적인 묘사 (전 1:12~18)
- ③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인물 (전 2:4~9)
- ④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고 묘사 (전 1:16)

▶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 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 1:2)
아들은 자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왕도 지도자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코헬렛은 자신이 전문적인 지혜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 (전 12:9~12)
- ③ 정작 자신이 솔로몬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음
- ④ 코헬렛은 모호하게 익명성을 고집하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던 솔로몬을 고유한 문학적 장치로 활용 (페르소나 기법⁶⁾)

(4). 저작 시기 : 알 수 없음

▶ 주전 10세기부터 헬레니즘 시대인 주전 2~3세기 사이로 추정

- ① 전도서의 저작 시기와 관련한 실제적인 합의점은 아직 없다.
- ② 저작 시기가 전도서를 해석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6) 원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

(5). 기록 목적 :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의해 멸망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
주전 332년	헬라에 알렉산더가 정복
주전 301년 ~ 198년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

- ▶ 프톨레미(헬라제국)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 헬라철학을 모르면 야만인, 헬라문화를 모르면 야만인
- ▶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라어를 공부, 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수용
- ▶ 이스라엘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온 헬레니즘⁷⁾을 비판하고 헤브라이즘⁸⁾을 강조
일상은 헬레니즘의 삶, 종교적인 부분은 헤브라이즘의 삶 (세계관의 투쟁)

2. 전도서의 특징

(1). 묻고 답하는 일상의 구원과 성찰

- ▶ 구원의 문제를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전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답한다는 사실이다.
- ▶ 전도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일상의 구원, 현실에 뿌리박힌 참된 영성이 고동친다.

(2). 지혜의 출발점 : 가장 사소한 것의 가치

- ▶ “해 아래” 곧 땅 위의 가장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라

7) 고대 그리스적 세계관, 인본주의,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8) 기독교적 세계관, 신본주의, 교부철학과 스콜라철학

(3). 기쁨의 복음, 기쁨의 신학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
욥기	고통의 한복판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
전도서	먹고, 마시며, 노동하며 즐겁게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 ▶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덧없기에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은 절망의 상태**에 놓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 ▶ 전도서의 지혜 가르침에는 반전이 있다. 헛됨과 허무, 부조리하고 덧없는 현실의 묘사를 가로질러 **삶을 즐거워하라는 초청**이 거듭된다.
- ▶ **먹고 마시며 노동을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 (전 3:12~14)

(4).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 ▶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코헬렛은 편집자적인 가필 형식을 빌려 자신의 지혜 교훈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그리고 삶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한다. (전 12:9~14)

(5). 반복되는 단어, 1인칭의 자전적인 화법

- ▶ 전도서에는 적어도 5회 이상 나타나는 히브리어 어근이 25개나 있고 3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들도 있다. 물론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은 글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반복 어휘들은 코헬렛이 강조하려는 담론을 집약시켜 암호화된 전도서의 본문을 풀어주는 열쇠말로 작용한다.
- ▶ “나는 알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혜를 쌓았다”, “나는 내 마음을 두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등의 표현은 삶에 대한 관찰과 반성의 응축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표현의 반복은 전도서가 경험과 관찰, 그리고 사색이 바탕이 된 책이라는 정당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6). 수사학적인 질문⁹⁾

▶ 전도서에는 30회 이상의 수사학적 질문이 등장, 수사학적 질문은 청중과의 합의를 끌어내고, 논쟁적인 삶의 정황에서 양극적인 논쟁을 강화하거나 문학적인 정황에서 논증을 촉진한다. 상대를 공격하기에 유용하고, 때로는 동정이나 비난, 웃음을 자극한다. 또 어떨 때는 제기한 질문에 대해 독자들이 저자의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다.

예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 1:3)
→ 모든 것이 헛되다로 연결

(7). 비교 잠언 양식

▶ “A는 B보다 좋다” 화자의 설득력을 높이는 수사학적인 장치

예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7:2)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전 3:24)

(8). 잠언 욕기 전도서의 차이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함 율법적인 지혜, 토라의 지혜
욕기	여호와를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음 잠언과 달리 여호와의 경외함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음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것에 있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 가르침
전도서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모순되는지에 대해 가르침 헛됨과 무의미함에 대해 말함

9) 수사학적 질문은 즉답이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깊이 묵상해 스스로 자신 만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배철현, 인간의 위대한 질문 중에서)

3. 전도서의 구조

시작	끝
전 1:1 (제목)	
전 1:2 (주제)	
전 1:3 (주제 질문)	전 11:7-12 (3연시)
전 1:4-11(2연시)	전 12:8 (주제)
	전 12:9-14 (맺음말)

전도서의 이중 틀 (전 1:1-11, 12:8-14)

제1부 : 우주, 인류, 도덕적 질서 : 모든 사람의 행위와 “헤벨”(전 1:12~6:9)
 A. 왕의 업적과 수고, 그리고 “헤벨”(1:12~2:23)
 “즐거워하라”(전 2:24~26)
 B. 양극의 시간 : 사람의 노고와 하나님의 행위(전 3:1~13)
 “즐거워하라”(전 3:12~13)
 C. 심판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헤벨”(전 3:14~21)
 “즐거워하라”(전 3:22)
 D. 모든 억압, 성취, 통치, 부의 “헤벨”과 하나님 경외(전 4:1~5:17)
 “즐거워하라”(전 5:18~20)
 제1부의 요약 :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헤벨”(전 6:1~9)

제1부와 2부의 가교 (전 6:10~12)

제2부 :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 : 인간의 앎과 지혜의 한계(전 7:1~11:6)
 E. 더 좋은 삶의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전 7:1~8:13)
 “즐거워하라”(전 8:14~15)
 F. 사람의 지혜와 한계, 그리고 죽음(전 8:16~9:10)
 “즐거워하라”(전 9:7~10)
 G.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 그리고 감춰진 미래(전 9:11~11:6)

전도서의 내부 구성과 내용 (전 1:12-12:7)

2021년 7월 21일(수)_제2강

4. 본문연구

(1). 책의 표제어와 주제 (1:1-3)

▶ 전도서의 주제 : 2절에 헛되다의 반복을 통해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을 마음껏 누리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

전도서 1장

● 덧없고 덧없다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문 : 덧없고 덧없어라. 코헬렛은 말했다. 덧없고 덧없어라. 모든 것이 덧없어라.

※ 1:1 표제 : 표제는 장르, 저자, 책의 연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줌

※ 전도자(코헬렛) :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전도자로 번역, 공동번역은 설교자로 번역
코헬렛은 이스라엘의 지혜인이요 교사이고, 인생을 고민하고 관찰하면서 참 삶의 길을 발견하고 애쓴 사람이며, 수많은 지혜의 수집가

※ 헛되다 - 헤벨(הבל) : 전도서의 핵심 단어, 구약성경에 73회, 전도서에 38회

- ① 안개 수증기 vapor
- ② 공허, 허무함 vanity
- ③ 무 nothing
- ④ 이해할 수 없는 것, 불가해성 incomprehensibility
- ⑤ 사기, 기만, 허위 deception
- ⑥ 덧없는, 단명, 일시적인 ephemeral
- ⑦ 어리석음, 무분별한, 터무니없는 nonsense
- ⑧ 불합리, 부조리 absurd

▶ 헤벨은 우리의 시야 속에 분명히 있는 공중의 수증기처럼 존재하면서 금세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자취를 감춘다.

▶ 코헬렛이 바라본 세상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면 그만이어서 덧없기 그지없다. 인간의 삶이란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한숨이며 쉬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 무익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 3절은 수사학적 질문(주제 질문) :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몰아세워 자신의 말에 동의하도록 끌어들이는 장치

※ 해 아래 : 새번역은 세상에서로 번역, 하나님이 계신 해 위의 세계가 있음을 시사 전도서에 29회 사용되며 구약 성경중 전도서에만 나타나는 표현

※ 유익 : 전도서에만 10회 사용, 물건을 판 후 남는 이익을 의미한다.

▶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노동에 관한 의문을 제기 인간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히 짚어낸 질문

(2). 자연의 길, 인간의 길 (1:4-11)

● 자연의 길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 자연만물의 무한 반복의 네 가지 요소

① 땅은 영원히 있도다 : 땅은 세상을 의미

② 해는 뜨고 지되 : 코헬렛은 태양을 의인화해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이미지로 형상화

③ 바람도 돌고 돌다가 불던 곳으로 온다.

④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넘치지 않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다시 흐른다.

인간계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무한 반복’은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결코 그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시 처음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 “가고 오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법 (전 5:15)

코헬렛은 죽음을 “가는 것” (전 3:20; 6:6, 9; 7:2; 9:10; 12:5)

출생을 “오는 것” (전 5:15; 6:4)

● 인간의 길 : 해 아래 새것은 없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 코헬렛은 자연의 반복적인 운동을 보며 “만물”이 지쳐 있음을 말도 다 할 수 없다고 노래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 코헬렛은 과거(이미)와 현재(해 아래), 그리고 미래(후에)를 하나의 순간처럼 동일시 “**해 아래 새것은 없다.**”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 기억됨이 없다 : 새로움의 부재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한 기억력이 문제

▶ 코헬렛의 목표 : 새로움의 부재로 인한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냄

(3). “헤벨”이로다! (1:12-18)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 코헬렛은 새로운 담론을 시작하며 말하기 방식을 바꾼다. (1인칭 화법)

12절 나는 코헬렛(전도자)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전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전도서 본문은 “코헬렛”이 솔로몬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다.

▶ 의도적인 모방 : 솔로몬 전통의 패러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임을 확신했으나 최근의 연구는 코헬렛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지혜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 지혜의 말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 전도서 1:12-2:26의 문학적인 양식은 왕의 경험과 회상을 1인칭의 유언 형식으로 기록한 고대 근동의 비문과 유사하며 코헬렛은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코헬렛의 실망 :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지만 괴로운 것이다.

코헬렛이 묘사한 하나님은 우주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활동하며 항상 주는 분, 행하고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함께 주는 분이시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 본 후에 내린 결론 “헛벨”이며 “바람 잡는 것”이다.

- ▶ 바람은 1:6에서 진술한 대로 이리저리 불고 예측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속성
- ▶ 코헬렛은 모든 경험과 관찰과 이성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 했으나 그것을 손에 쥌 수 없었고 “헛벨”을 선언한다. 이유는 불행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의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 ▶ 코헬렛이 “헛벨”과 “바람”을 병행시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담아내기 위함이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성에 갇힌 존재이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 ▶ 결핍되고 모자란 부분은 인간에 의해 채워질 수 없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16절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으로다

※ 내 마음 속으로 말한다 :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태도 (전 1:16; 2:1; 3:17,18)
내면의 성찰을 추구하는 지혜자 코헬렛

- ▶ 자신이 획득한 지혜와 경험한 지혜의 위대함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 ▶ 16절에서 코헬렛은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자랑하지만 17-18절에서 즉각 태세를 전환
- ▶ 지혜와 지식은 번뇌와 고통으로 연결된다. 코헬렛은 사람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번뇌와 고통을 벗어버릴 수 없음을 정확히 꼬집는다. 이스라엘의 지혜전통과 대립
- ▶ 1:12-18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헛벨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① 그것은 괴로운 일들이다. (13, 17)
 - ② 인간의 힘으로 구부러지고 결핍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5)
 - ③ 지혜나 지식은 분노와 고통을 더하기 때문이다. (18)
 - ④ 이 모든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14, 17)

(4). 온갖 노동과 “헤벨”에서 출생한 기쁨 (2:1-26)

전도서 2장은 솔로몬 왕을 짐작하게 하는 1인칭 화법의 담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도서 2:4-11의 묘사는 솔로몬을 제외하고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절대로 솔로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솔로몬 전통의 패러디를 시도)

전도서 2장

● 솔로몬을 패러디하다 : 온갖 수고와 허무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인생의 문제를 깊이 따져보고 사색하려는 태도가 느껴진다.

※ 너는 낙을 누리라 : 인간이 자신의 하는 일에서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함

※ 헛되도다(헤벨) : 즐거움도 순간이다. 덧없고 무의미하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 기쁨과 웃음마저도 “헤벨”이다. 즐거움도 순간이다. 덧없고 무의미하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 술 : 코헬렛이 선택한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 인생의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방법
실제로 솔로몬 왕이 행한 일 : 술(왕상 4:22-23), 왕궁 건축, 무수한 첩들(11:3)

▶ 왜 “최고”가 아닌 “좀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일까? 아마도 그가 해 아래의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 4-8절 : 엄청난 재력과 재능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취할 만한 위대한 업적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보다 큰 세력을 떨치던 사람이었다고 회상

▶ 9절은 4-8절에서 진술한 부요함, 성취, 자기만족의 사례들을 마무리한다. 물질적 소유와 권력, 성적 쾌락과 함께 부자로서 누린 탐닉 나아가 코헬렛은 ‘지혜가 여전히 자신과 동행한다고 말한다.

※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 탁월한 성취 속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성찰하며 살았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 “내 눈”, “내 마음”, “즐거움”, “나의 모든 수고”, “몫” : 코헬렛이 즐겨 사용하는 말

▶ 왕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 성취한 모든 것을 돌아보며 “덧없고, 바람을 잡는 것이요, 해 아래 아무 유익이 없다.”

▶ 자신의 성취와 노동의 결과물로 유발된 만족은 일시적 쾌락에 불과하다. 코헬렛은 일시적 쾌락으로 즐거움을 경험했으나 많은 시간이 흘러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 성취는 기만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는 공동 운명체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 “그리고 나는 돌이켜 보았다” : 코헬렛의 반성적인 성찰

▶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왕도 특별하지 않다. 이전 사람의 업적을 반복할 뿐이다. 왕의 업적과 위대함은 또 다시 무효화 된다. 근거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다. 죽음은 끝이지만 역설적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장치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도 새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1:9)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 비교 잠언 형식 : 어리석음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지혜의 가치는 여전하다. 코헬렛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과감하게 지적하면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흘러온 맥락에 따라 여전히 지혜의 우월성과 가치를 옹호하고 수호한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 14절은 13절의 논점(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을 뒤집는다. (모순 관계)

※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 하나의 운명만이 모든 이에게 떨어진다.
인류는 공동 운명체다. 모두 죽기 때문이다.

※ 당하는 일(운명) : “뜻하지 않은 일” 즉 “저절로 일어나는 일” 죽음을 발원하는 맥락에서 발견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 지혜의 우월성을 외치면서도 죽음 앞에 놓인 지혜의 한계성을 정확히 인식한 코헬렛

▶ 죽음의 운명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죽음의 운명은 지혜 추구의 목적을 상쇄¹⁰⁾하기 때문이다. (15절)
둘째, 죽음의 운명은 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16절)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 “나는 살아 있음을 증오했다” 탐탁지 않은 인간의 삶

▶ 지혜 추구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어리석음만 남았다.

● 인간의 온갖 수고가 덧없을 뿐이라니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 내가 수고했던 온갖 나의 수고를 증오했다. “내가 노력한 온갖 나의 노력” 또는 “내가 수고한 나의 온갖 노동”을 증오했다.

▶ 코헬렛은 자신이 이룬 것을 이후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하므로, 자신의 노동과 성취 그리고 소유의 문제에 대해 절망한다.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 전통적 지혜 관점에서 볼 때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의인이요, 선한 사람이다. (잠 13:21-22) 그러나 코헬렛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0)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 해 아래에서 감당해 온 자신의 온갖 수고로운 노동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 지혜와 지식을 다해 수고하지만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정작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수고도 **“헛것”(헤�벨)**이며 **너무 큰 “악”일 뿐**이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 마음에 애썼던 것들은 모든 성취와 소유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고 그는 잠도 못 잔다. **인생이 다시 한 번 “헤�벨”임을 고백**한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 사람의 온갖 수고와 노동과 노력이 덧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순간 터져 나오는 코헬렛의 단호하고 경쾌한 충고는 의외다. 그는 삶의 “헤�벨” 곧 “덧없음”을 뒤로하고 느닷없이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삶을 즐기라고 권한다.

▶ “~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구문은 코헬렛이 즐겨 사용하는 어법 (전3:12, 22; 8:15) 코헬렛은 보편적인 인류의 노력과 노동,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이 매우 사소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활이라는 해답은 너무 단순하여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기쁨은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단순 소박함에서 비롯된다.

▶ 온갖 수고와 열정 사이를 비집고 “덧없는” 현실을 가로질러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을 맛보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 카르페 디엠(carpe diem)¹¹⁾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은 “헤�벨”만큼이나 중대한 선언이다. 코헬렛은 삶의 한가운데서 “헤�벨” 곧 허무, 부조리, 헛됨, 덧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삶을 즐겨워하라”는 권고를 병행시켜 내놓는다.

25절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지금까지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시도했던 많은 노력에 대한 결론이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이 먹고 즐기는 일에 만족했던 삶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이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했다. 인생은 여전히 “바람을 잡는 것”(헤�벨)

11)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2021년 7월 28일(수)_제3강

(1). 양극¹²⁾의 시간과 삶의 신비 (3:1-15)

전도서 3장

● 때에 맞게 오고 가는 인생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1절은 나머지 시행(3:2-8)의 표제 기능을 한다.

▶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시간”과 “그 때”라는 시간의 맥락 안에서 살아간다. 때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늘 아래”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 히브리 시의 간결함이 살아 있다. (2-8절)

※ 태어날 때와 죽을 때 : 삶의 시작과 끝

※ 심을 때, 심긴 것을 뽑을 때 : 사람이 나고 죽는 것처럼 식물도 삶과 죽음의 과정을 겪음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매는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 그가 작성한 간결한 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코헬렛은 교차하며 발생하는 양극의 긴장된 상황과, 때로는 모호한 삶의 여정을 찬찬히 음미하라고 권한다.

▶ 삶의 긍정과 부정의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양방향 사이를 오가는 삶의 현실을 관찰하며 시간의 지배자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의 간결한 시는 우리를 사람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인도한다.

● 사람의 “수고로운 일”의 “이익”이 무엇인가?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 코헬렛은 질문을 통해 지성적인 성찰을 하도록 자꾸만 재촉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말이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태초 이래로 사람은 누구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12) 부정과 긍정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 1:13의 노동의 특성을 다시 진술한다. 시간 속의 일들은 하나님이 지게 하신 삶의 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 2-8절에 대한 신학적 반응이 11절의 말씀이다.

▶ 인간의 무지에 대한 코헬렛의 깨달음

- 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만드신다.
- ② 영원함에 대한 감각 혹은 영원한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의해 주어졌다.
- ③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들의 시작과 마지막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핍 속에 존재한다.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 전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절

“영원”은 인간의 인식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

“무지” 또는 “어둠” 이고 “미지” 또는 “비밀”이기도 하다.

▶ 코헬렛은 삶의 다양한 사건들에 시간표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못 박는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 사람이 현재 자기 행위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전도자의 행복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 코헬렛은 “순간”(헤벨)과 “영원”(무지 또는 미지)의 상태의 놓인 인간의 조건을 고찰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13절)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즐거움**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 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 전도서의 최종 목표는 회의주의 자체가 아니라 염세주의를 극복하고 지혜의 기초인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게 하는 것 (5:7; 7:18; 8:12-13; 12:13)

▶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는 주제의 반복 :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 과거와 미래를 아는 감각이라는 은총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11)

(2). 사회적인 문제들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행복 (3:16-5:20)

코헬렛은 새로운 주제 즉 인간의 삶과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한다.

● 정의는 존재하는가?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 정의를 행하는 곳(법정)에도 악이 있다. 코헬렛은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시대의 악을 고발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비겁하게 권력에 빌붙어 힘을 탐하거나 추종하며 아첨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 시대의 불의를 고발하지만 희망을 접어 버리지 않는다.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 시험하시리니(바랄)

①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시다. (겔 20:38) ② 하나님이 그들을 분류하시다. (느 5:18)

▶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인간과 동물이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말한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 인간의 운명과 동물의 운명은 동일한 운명이다. (새번역) 아무리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다. 그러니 “허무”(헤벨)하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 ‘혼’은 ‘넋, 정신, 열’ 등의 뜻을 지니는 데 반해, ‘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숨’을 의미 - 여기서는 ‘숨’에 가까움 - ‘정말로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갈지, 짐승의 혼이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뜻 - 코헬렛은 당대 사람들의 상식에 도전하고 있음.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 개인의 일, 노동, 성취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그것은 그에게 할당된 ‘몫’이기 때문이다.

▶ 즐거워해야 할 이유 :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므로 지금 즐거워하라

전도서 4장

● 위로받을 길 없는 억압적인 현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라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 이런 표현은 전도자 자신이 왕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압제당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할 사람이 없다. 그의 말은 뼈아프지만 진실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진실은 더 가까워진다.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 독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 “아직” 살아 있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을 축하했다”는 뜻이다.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 전도서 저작 당시에 가렴주구(苛斂誅求)¹³⁾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탄식 -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에 전도자는 차라리 죽은 자를 찬양함

▶ 거센 현실에 대한 비탄에서 터져 나오는 코헬렛만의 말하기 방식

코헬렛에게는 살아 있는 것도 좋지만 죽음도 유익하다. (예 : 욥, 예레미야)

13) 가혹(苛酷)하게 세금(稅金)을 거두거나 백성(百姓)의 재물(財物)을 억지로 빼앗음.

● 수고와 성공의 허상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시기(질투) : 히브리어 “킨아” = “열정”이라는 뜻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

▶ 경쟁심에서 비롯된 “온갖 수고”나 온갖 노력 또한 헛벨이다.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 평온이 없다면 두 손에 가득한 소득이 한 손에 가득한 소득보다 열등한 가치로 평가됨
평온함이란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와 안전을 말함

● 헛된 수고를 그복하는 방법, 함께 나누는 행복

7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 계속해서 “덧없음” 곧 “헛벨”의 주제를 이어간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 고독한 남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줄 모르는,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 홀로 있으나 : 수고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사람이 없음을 뜻함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 함께 가다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보호하고 일으켜줄 수 있다. 경쟁에서 이겨 홀로 부를 축적하고 독식하는 것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승리가 무슨 이득이 될까? 그러니 둘이 하나보다 좋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 사람들 사이에 작용하는 시기심이나 질투, 경쟁의 문제를 심각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는 동료애를 비롯해 함께 나누는 행복의 가치를 강조한다. (협력하는 공동체)

● 정치권력의 무상함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높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 가난을 뛰어넘는 지혜의 우월성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왕의 통치도 덧없고, 바람 잡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왕의 업적과 통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고 “잊힌다”라는 사실이다.

전도서 5장

● 말의 경건과 하나님 경외의 관계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 발이 가는 길 : 그의 행동과 연관되고, 그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27)

※ 듣는 것 : “들음”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들음 → 생각 → 깨달음 → 감사

▶ 비교 잠언 양식의 반복¹⁴⁾ 코헬렛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 기도할 때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 것에 대해 교훈하신 것과 일치(마 6:7-8) -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신인동형동성론적¹⁵⁾ 하나님 이해는 순전히 인간들의 주제넘은 생각이자 기대에 불과 -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님 -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적은 말로 기도함 -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 - 충분히 생각한 후에 기도하라는 것(마 6:7)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 꿈 : 망상

14) “A는 B보다 좋다” 화자의 설득력을 높이는 수사학적인 장치

15)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양(동형)과 같은 성정(동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상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 서원(맹세)에 관한 문제 :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실수하는 것보다 말조심하는 신중한 태도가 더 좋다.

6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 말 많고 꿈(망상) 많은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 신앙의 삶에서 행동과 말의 절제를 연결하는 코헬렛의 결론 : 하나님을 경외하라

● 정치적인 억압의 현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억압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지만 정의의 실행은 고대 사회의 지혜 전통에서 권력자가 갖춰야 할 우선적인 덕목이다.

●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유함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 ‘은’은 돈을 가리킴 - 탐욕은 밑 빠진 항아리처럼 채울 수 없음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성찰의 과제를 독자에게 넘기는 수사학적 질문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며 잠 못 이루는 부자의 비애와 가난한 노동자의 단잠을 비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 재산의 과잉이 가져오는 폐해 (13-17절)

부를 향한 과도한 열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을 선택하라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소박한 삶의 기쁨과 가치를 누리라

● 덧 없고 허무한 인생을 즐겨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할당된 “몫”(나눠진 복)을 누리는 것에 있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 적당한 부와 소유를 주어 그것을 누리며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 20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자신이 살아갈 날들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지(염려하지)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코헬렛이 권하는 건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몫으로 기쁨을 누리는 지점에서 삶의 행복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분복”, 즉 독식이 아닌 나눔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향한 저항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대안을 상상하는 삶만이 코헬렛의 권면에 부합한다.

2021년 8월 4일(수)_제4강

(1). 내일을 모르는 인생, 더 좋은 삶은 무엇인가? (6:1-8:15)

코헬렛은 사람이 과도한 수고에 시달리면서 자기 생애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며 답을 찾아간다.

전도서 6장

●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즐기지 못하는 삶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 불행한 일 : “악” “잘못되고 억울한 일”(새번역) 어떤 이는 자기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고스란히 누리며 살지만, 다른 이는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 악한 병 : “괴로운 고통”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 (새번역)

▶ 코헬렛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자신이 관찰한 일을 묘사한다.

3절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 100명의 자녀를 얻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 솔로몬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영혼”, 곧 “그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은 허망할 뿐이다.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 전혀 기억됨이 없이 사라진다.

▶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어둠 속에 덮인다. 하지만 이 아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자보다 낫다.

6절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 천년을 두 번 살아도 별수 없이 모두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코헬렛은 계속해서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

- 사람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허무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 식욕 : “네페쉬” 영혼, 삶, 생명, 욕망, 인격, 자아, 감정, 열정 등 다양한 의미
결국 “네페쉬”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모든 욕망을 의미한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 지혜자들은 보통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코헬렛은 다른 지혜자들과는 달리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비해 무슨 이득이 있는지 묻는다.

▶ 지혜와 지식을 가져도 탐욕적 사회 구조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바람 : 무익함과 의미 없음

▶ “~이 더 좋다” 비교급 문장 : 실제로 소유한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날마다 큰 것을 꿈꾸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실제적이 자족에 대한 가르침이다.

-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 이 작은 단락(10-12절)은 전도서를 둘로 나누는 정확한 분기점이다.

▶ “무엇이 좋은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묻는 12절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후반부와 내용과 연결

※ 사람이 자신보다 강한 자와 논쟁할 수 없다. 옴과 이사야를 떠올릴 수 있다.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질문과 논리로 옴을 압도하셨다. (옴 38-41장)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 45:9)

▶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강한 자” 또는 “압도하는 자”를 넘어설 수 없다. 사람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이다.

전도서 7장

● “무엇이 좋은가”를 안다는 것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은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새번역)
살아 있을 때 의도치 않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는 것이 더 낫다.

▶ 삶과 죽음을 비교해 죽음을 우위에 두는 관점은 충격적이다. 코헬렛은 삶과 죽음의 가치를 동등하기 여기며 더 나아가 죽음이 삶의 억압과 무익함으로부터 탈출하는 피안의 세계라고 말한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 장례식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모두의 죽음을 되새기는 기회다. 슬픔이 머무는 초상집에서는 타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된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일이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 기쁨과 다르게 애통과 슬픔은 세상을 똑똑히 보게 해준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대조한다.

▶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를 가마솥 밑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시덤불의 기운과 타다닥 타들어 가는 소리에 빚댄 문장의 구성도 흥미롭다.

▶ 코헬렛에게 탐욕과 뇌물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가진 것을 누리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하는 것이 탐욕이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 일의 끝을 보려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코헬렛은 인내심의 결핍으로 화를 쉽게 내고 참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 코헬렛은 열렬하게 “지금 여기”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코헬렛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 “오늘”에 초점이 맞춰진다.

11절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 **햇빛을 보는 자** : 살아 있는 자를 말함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을 동일시 하는 것은 결국 하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부나 지혜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반복되는 같은 표현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15)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하거나 뺄 수 없다” (3:14)

▶ 코헬렛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관찰하라고 명령한다. 사람은 누구도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권한다.

▶ 하나님의 행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일을 내다본다고 해도 실제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제로 사건이 닥쳐야만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과 불완전성으로 고스란히 노출된다.

▶ 인간과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인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 안에서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 7:16	전7:17
너는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a)	너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a')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라(b)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b')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는가?(c)	어찌하여 너의 때가 아닌데 죽으려 하는가?(c')

▶ 지나친 지혜와 의로움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피하라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가지 극단인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악행을 피하는 바른 태도요 행동인 중용이라 주장 - 토라에 대한 준수 여부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 지혜의 탁월성을 이야기하지만, 20절에서 지혜의 탁월성을 또 한 번 뒤집는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 죄의 보편성 :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여준다.

● 지혜로 모든 것을 시험해보았지만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지혜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 지혜는 결정적으로 지혜 자체의 한계를 아는 것과 관련된다.

▶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오?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은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네(욥 28:12-13)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 코헬렛의 집요한 열정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 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 28절은 매우 모호한 수수께끼 : 이것은 코헬렛의 주장이 아닌 인용구로서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의 여성혐오적 경향을 반영하는 말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 29절에서 29절의 여성혐오의 주장을 반박 : 창조질서(창 1:27)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코헬렛의 열정

- ① 어리석음이 마치 유혹하는 여자의 올가미와 같다.
- ② “보라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 - 독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킴
- ③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인류의 결과적 행동이 대조를 이룬다.

전도서 8장

●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 ‘지혜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다’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 왕이 임직할 때 백성들은 보통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대상 11:3; 롬 13:12)
코헬렛은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한다.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 지혜자가 명령을 지키고 미래를 예측함으로 악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떤 지혜자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일을 막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말이다.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 인간에게 통솔권이 없는 4가지 : 바람, 죽음의 날, 전쟁, 부

● 연기된 심판과 삶의 기쁨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 타인을 향해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남용하는 사람은 끝내 불행한 결말을 벗어날 수 없다.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 코헬렛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도 악을 징벌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고민함

12절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 인과응보 원리의 파괴

악인들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의인들이 있다.

의인들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악인들이 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나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부조리”(헤벨)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문제의식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신중한 태도로 결론을 열어 두었다.

▶ 세상 속에 남은 것은 일상의 즐거움 뿐이다.

2021년 8월 11일(수)_제5강

(1). 이해할 수 없는 삶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 (8:16-9:10)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코헬렛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사람이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말한다.

▶ 코헬렛은 솔직하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자기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참 지혜다.

전도서 9장

● 공동 운명체여, 즐거워하라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 코헬렛이 마음을 쏟아 자세히 살핀 것이 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또 그들의 앞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 앞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이 전부 알 수 없다고 말한 그는(전 8:16-17), 더 명료하게 인간의 무지와 한계에 관한 생각을 펼쳐놓는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 : 죽는다.

▶ 인간의 기대와 달리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한 종말을 맞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하고 일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고 또 마침내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더욱 불행한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렘 17:9)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은 가장 큰 불행이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가 있고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필요성이 있고 심령의 변화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의 변화의 가치가 있다.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 살아 있는 개와 죽은 사자의 비유를 통해 살아 있음의 가치를 옹호한다. 개는 짐승 중에 보잘 것 없는 짐승이며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불리지만 죽은 사자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자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뿐이다.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 죽은 자가 복되다고 말했지만(4:2-3) 이제 살아있는자가 복되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방향의 현상들을 동등하게 바라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관찰한 세상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는 인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양극적인 삶의 현상들을 유심히 살펴본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3:1-8)

▶ 전도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지적인 능력'이다. 산 자는 아무리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의식은 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그 어떤 지적인 의식도 없다. 여기에는 전도자의 실질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두 번째 차이는 인생의 기회다. 죽은 자는 상을 받고 그 이름이 기억되는 복을 누릴 기회가 다시는 없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자량과 미움과 시기라는 인간관계의 형성 고리조차 없어진 죽은 자의 운명과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 생존이 죽음보다 나은 다섯 가지 이유

- ① 죽은 자들은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완전한 무지
- ② 죽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 ③ 죽음은 한 개인의 존재를 망각하게 한다.
- ④ 사랑과 미움과 시기의 모든 감정도 사라졌다.
- ⑤ 죽은 자들에게는 삶의 어떤 몫도 주어지지 않는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 코헬렛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의미있게 사는 법을 제안한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몫”(음식물과 포도주)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라는 의미다.

▶ “기름을 바르라”는 명령은 구약의 배경에서 특별한 표현 중 하나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인은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시 23:5), 혹은 “하나님이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시 45:7)라고 노래했다. 즉 기름과 향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표현하는 은유로 사용된다.

▶ 죽음을 향해 가는 공동 운명체인 인류에게 살아 있음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결정적 한 마디는 또 다시 “삶의 기쁨”이다. 코헬렛은 수고와 보상을 맛볼 수 없는 죽음의 상황 (9:5-6)이 닥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맘껏 누리라고 명령한다.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10절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 하나님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 그러나 그 기회는 제한적이다.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지만, 남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다. 그것을 감사히 받아 즐겁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살아 있는 시간은 기회다. 죽으면 그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바르게 보내야 한다. 가장 큰 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죽음은 순간의 사건이지만 살아 있음은 지속되는 사건이다. 매일 아침 햇갈을 새로이 보내시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으로 인해 사람은 일하고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일상을 반복할 수 있다. 해 아래 모든 인류는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 받는다. 이는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분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 증거다. 따라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은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2021년 8월 18일(수)_제6강

(1). 지혜와 어리석음의 긴장 사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비 (9:11-11:6)

● 예측 불가능한 삶과 숨겨진 함정의 질서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바라봄의 철학자 코헬렛

▶ 예측을 빚나가는 예외성에 관한 묘사 : 코헬렛은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예외성과 반전 가능성에 관심을 둔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 불행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 불확실성의 늪
코헬렛이 말하는 지혜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 불확실성이 가하는 충격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홍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 해 아래에서 관찰한 짧은 이야기

“작다”, “적다” 및 “강하다”, “거대하다”라는 형용사가 대조를 이루며 흥미를 유발한다.

▶ 지혜는 힘보다 강하지만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행위대로 거둬들인다는 보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보응”의 원리에 균열이 발생한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 코헬렛은 전통적인 지혜 신학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했다. 행위의 결과에 따른 걱정한 보응이라는 관점을 뒤집어버리는 상황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 코헬렛은 죄인 한 사람의 파괴적인 힘과 많은 선을 대비시킨다. 이로써 그는 “착함”의 무력함을 꼬집는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이 지혜를 무너뜨리는 일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롭고 착하고 의로운 행위가 삶을 좀더 살맛 나게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를 번번이 저버린다.

전도서 10장

● 지혜와 어리석음의 긴장 관계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 코헬렛은 죽은 파리의 향수에 빗대어 지혜와 영광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위력을 지목한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를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때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향과 태도는 안쓰러움을 불러일으킨다.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 코헬렛은 미련함의 나쁜 영향력을 권위자의 문제와 연결한다.

▶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지혜자의 침착함과 품위는 통치자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전복된 질서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 풍자성 짙은 말은 위치가 뒤바뀐 세상, 곧 모순으로 가득 찬 삶과 역사의 반전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전통적인 지혜 관념이 해체 된다.

▶ 사회적 통념상 부자들과 귀족들은 통치자 계급에 속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노예들은 통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코헬렛은 이런 계급질서가 뒤집힌 상황을 묘사한다. 세상일이란 결국 사람들의 예측이나 통념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사건과 사고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 코헬렛은 예기치 못한 위험들을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익숙한 일을 할 때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획과 실행에 따르는 적절한 결과물을 기대한다.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의 이야기 (에 5:9-7:10)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 같고 닮아야 쓸모 있는 도끼처럼 삶의 경험으로 다듬어진 실용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 뱀을 잘 다루는 “그 주인”이 뱀에게물린다면 그 전문적인 기술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초월하는 조절자, 곧 주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 : 말, 말, 말의 파괴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 어리석은 자의 말이 지나는 파괴력에 주목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낀다.

● 어떤 통치자의 에피소드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 코헬렛은 흥청망청한 관료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향해 선포하듯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한다. 마치 예언자의 심판 선포같은 선언이다. 반면 다음 절에 소개 되는 반대편 집단에게는 “너는 행복하다”고 말하며 온화하게 대한다.

▶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소년”, 곧 어린 청년이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해 아무 때나 잔치를 즐기듯 흥청거리는 관료들의 행태는 재앙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18절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를 날카롭게 묘사한다. 게으른 개인도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 코헬렛은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돈의 효용 가치를 생각한 것이지만 돈의 만능성을 말한 것은 아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전도서 11장

● 숨겨진 미래, 누가 알겠는가?

1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 너의 빵을 던져라 :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절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 먹거리를 나누고 재산을 분배하는 공유 경제의 의미가 담긴 셈이다. “빵”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다.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 구름과 비의 순환, 쓰러진 나무의 상태등을 묘사하며 자연의 힘과 신비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음을 보여 준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람이 알 수 없는 숨겨진 영역이 있음을 말한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 코헬렛은 인간의 경험적인 지혜가 닿지 않는 무지의 영역을 살핀다. 인간의 능력이 개발되고 과학과 의학이 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인류는 지식의 축적을 거듭하며 눈부신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 “하늘 아래”에서 성취한 업적들을 자랑에도 “하늘 위”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무능하지 않은가?

▶ “안다”는 것은 경험에 근거하여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사람의 수고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고에 따른 결과는 인간의 손을 떠나 있다. 잠언의 지혜자도 이에 동의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 코헬렛의 목표는 한 가지다. 해 아래 살면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의 끼어들음을 인식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의 신비를 인식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곳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해체가 시작된다.

2021년 8월 25일(수)_제7강

(1). 삶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11:7-12:8)

- 빛의 달콤함과 해를 보는 즐거움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 여기서 빛은 살아 있음을 표현하는 은유다. 코헬렛에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단맛을 주는 즐거움이다. 해를 눈으로 보는 일도 “즐겁다”. 코헬렛은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토브)라는 말을 가져와 우주가 처음 창조되었던 미지의 시간을 모방하며 살아 있음의 감격을 노래한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 항상 즐거워 해야 하지만 더움의 날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가올 모든 것은 “순간”(헤벨)이기 때문이다.

※ 캄캄한 날들 :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 아래 현실 세계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슬픔과 고통의 날들도 포함된다.

- 즐겨라! 젊은이여, 너의 청춘을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 청년 : 말 그대로 “젊은이”를 집합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코헬렛은 청년에게 “즐거라, 걸어라, 그러나 알라”고 명령한다. 젊음의 날을 즐기라는 조언에 이어 하나님의 재판정을 언급한다. 앞서 삶의 헤벨을 논하는 자리에서 삶의 즐거움을 권고했듯이 말이다.

▶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하고 혈기 왕성한 젊은 날을 즐기라고 권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도서 12장

● 그러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그리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무 늦기 전에” (원문에 가까운 해석)

▶ 코헬렛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힘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끌어 당긴다.

▶ 다가올 “심판”에 대한 신중함과 냉철함을 표출하며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촉구한다. “불행한 날들”이 오기 전에 말이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암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묘사 =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 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 떨 것이며 : 두려움의 표현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 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 계속되는 공포의 위협에 관한 묘사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 코헬렛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직관력과 통찰력, 감수성을 가지고 예언자처럼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묘사한다.

-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6절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 ▶ 은줄과 금 그릇은 생명과 빛의 상징이다. 샘에서 물동이가 깨지는 모습은 삶의 종말을 나타낸다. 황폐한 거리의 광경을 지나 (12:3-5) 이제 일상의 빛이 소멸하고 샘이 파괴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 ▶ 사람은 자신의 근거인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 ▶ 삶과 죽음이 먼 거리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 독특한 “헤벨”의 반복은 삶의 대한 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덧없음, 곧 일시성을 상기시켜 죽음과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모든 것의 시작과 종말을 헤아리도록 안내하는 지혜신학의 초청이다.

(2). 맺음말, 지혜자 코헬렛, “하나님을 경외하라” (12:9-14)

- 코헬렛의 정체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 ▶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추가 사항” 또는 “부록”이라고 읽을 수 있는 “베요테르”(12:9, 12)가 전도서의 마지막 단락을 열어준다.

- ▶ 코헬렛이 지혜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 뒤에 이어지는 4개의 강조형 동사 가르치다, 경청하다, 조사하다, 정리하다는 코헬렛이 수행했던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경청하다” : 주의 깊게 생각한다.

“조사하다” : 생각하고 발견한다.

“정리하다” : “편집하다”라는 뜻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코헬렛은 잠언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잠언들을 모으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며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해석학적인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 “기쁨의 말들”을 찾으려고 애썼다. “진리의 말들”을 바르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 “한 목자” : 지혜의 원천이며 제공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잠 2:6)

●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 내 아들 : 지혜자들의 글에서 제자를 일컬을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어구

※ 공부(라하그) : 다른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어휘 : “책에 열중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연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 코헬렛의 마지막 당부 :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인식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발현된다.

▶ 코헬렛의 마지막 당부 : 그의 명령을 지키라 “토라”를 일상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마지막까지 코헬렛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놓치지 않는다. 이로써 긴급한 마음으로 명령했던 삶을 즐기라는 기쁨의 명령과 마지막 심판은 팽팽한 긴장 관계 안에 놓이게 된다.

▶ 숨겨진 모든 것들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당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다.

▶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명령(12:1)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래할 심판을 경계하라는 권면(12:14)은 분리될 수 없다.

5. 결론

- ▶ 전도서의 모호성은 저자 코헬렛의 수사적인 전략이다. “낮설게 하기”를 목표로 한다. 즉 독자들은 코헬렛이 만들어 놓은 말의 숲속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신학과 신앙을 낮설게 느끼게 된다.
- ▶ 전도서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지혜 문헌 보다 좀 더 사색적이고 실존적인 성격이 짙다. 게다가 허를 찌르는 솔직한 발언이나 “이것이다”라고 말하다가도 “저것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오히려 구약의 다른 지혜서와 전도서 사이의 차이를 섬세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 ▶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전통 지혜가 막닥뜨리게 된 위기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전도서는 여전히 지혜 전통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견지한다.
- ▶ 코헬렛은 삶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삶의 양극적인 사태에 관심을 둔다. 그가 죽음을 생명과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죽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함이다.
- ▶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삶의 기쁨을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인생의 밝고 어두운 양면을 정직하게 대면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 ▶ 하나님에 관한 진실과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하기에 정직했던 코헬렛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렵듯이 알 수 있을 뿐, 그 일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말한다.
- ▶ 코헬렛은 모든 담론을 정리하면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인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조절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촉구하는 지혜 강령을 제시한다.

6. 전도서 소감문

소감문 작성 후에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주세요.

이름:

[illegible]

강의를 마치며...

지난 7주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함께 함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강의안을 만들며 먼저 인생의 모든 것이 “헤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10일(토)

-부족한 자 조현식 목사 드림-

